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청년 헤드헌팅대회

기사 : 박지혜 객원기자
전북여성긴급전화1366 사무국장

장애청년헤드헌팅대회는 기존 취업박람회 등을 깨고 전문직업상담가의 상담 후 구직자의 능력과 경력에 맞는 기업을 알선하고 면접을 통해 채용까지 이루어지는 형태로 그 시작부터 많은 조명을 받았다.

기업은 자신들의 요건에 적합한 전문 인력을 수급 받으며, 구직장애인들은 시간낭비 없이 자신에게 맞는 기업과 사전면접 예약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청년과 우수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을 개발하고 높은 이직률과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실용적이며, 새로운 형태의 신취업박람회라고 할 수 있다.

한 지체장애인은 "장애를 가진 뒤로는 원하는 기업에 당당히 면접을 본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공개 취업박람회는 생산직이나 노무직에만 국한되어 있어 면접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야만 했다"고 심정을 이야기 하였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이 같은 문제를 탈피하고 '맞춤형 장애청년헤드헌팅대회, 2% 실천'이라는 제목 아래 지난 7월 13일~14일까지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aT 센터 제2전시관에서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노동부, 실업극복국민재단, 잡코리아, 조선일보, 전자신문사, KBS, 하나로텔레콤 후원, 보건복지부 주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국회의원 정하원의 주관으로 우수기업들과 대졸 이상의 유능한 장애청년들을 능력과 경력에 적합한 직업을 얻

결하고 전문적인 경력 관리를 지원하는 매칭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대상 헤드헌팅 대회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한 만큼 관심도가 높은 행사임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기업들과 우수한 능력을 가진 장애청년들의 만남과 취업을 위한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내용으로 비장애인들에 비해 장애인




미니인터뷰

- ◎ 대회를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국내 최초로 장애청년을 위한 헤드헌팅대회 개최를 개회했다는 것에서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지만 KT, 대한항공 등 우수기업 발굴과 우수 장애청년 발굴이 가장 어려웠으며 중전의 취업박람회와 헤드헌팅대회와의 차별성 인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 ◎ 이 대회에서 가장 큰 성과로 평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동안은 취업박람회를 통해 취업한 근로장애인 10명 중 4명이 퇴사한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 기업측에서는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구직원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지적하며 인제가 없다는 불평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때문에 단순노무직과 생산직 중심의 취업박람회 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평과 지적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헤드헌팅대회는 기업과 장애인 사이에 직업재활수행기관이 중간 허브역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전 기업은 장애청년의 주요 이력을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하고, 장애청년은 기업의 채용조건을 확인하여, 양측의 구인구직과 구직구직가 상응할 때 면접이 이루어지도록 하

들의 취업률은 현저히 낮은 현실속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획한 행사로 더욱 큰 관심을 모으게 된 것이다.

행사 참가자들에게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면접 클리닉을, 취업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이미지 컨설팅과 주식회사 한화화학품 지원으로 메이크업, 증명사진촬영 등의 이벤트와 부대행사가 이루어져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청년헤드헌팅대회' 장애인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시작이며 과정이다. 이제 장애인도 당당하게 이력서를 내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즉 장애인들의 취업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으로 가는 길이 또 하나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송승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기획2팀장

- 였다. 그 중간에 직업재활수행기관이 있었으며, 장애청년의 면접은 직업재활 수행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과 장애인에게는 효율적인 면접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인력관리 및 경력관리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자 하였다.
- ◎ 이번 대회와 관련하여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기적으로 우수 장애청년과 우수기업을 육구파악을 통한 헤드헌터 육성 및 Search Firm 운영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번 행사의 결과보고와 평가를 통해 그 방향을 설정해 나갈 것이다.
- ◎ 대회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에게 제안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고용의 부분에는 다수의 장애청년이 취업하는 양적 해결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는 질적으로 우수한 기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헤드헌팅대회는 부족하지만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최초의 사업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